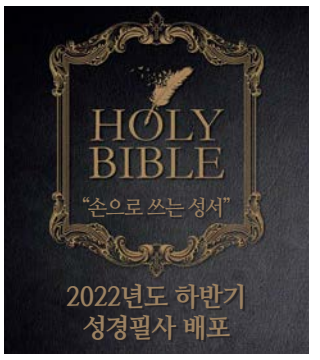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3 아트 캘린더〉 사랑부 발달장애 화가 작품

해외 선교지에도 매년 사랑부 캘린더 보내 그림으로 문화선교에 참여

〈2023 아트 캘린더〉 제작

광림교회 '2023 아트 캘린더'가 사랑부 발달장애 화가 13명의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캘린더는 표지와 1월부터 12월까지 합하여 총 13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세계는 평범한 일상으로 무뎌져 있던 우리들의 감성을 살아나게 한다. 무심히 여기던 사물이나 일상이 작품 속에서 아름다운 선과 색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말과 행동으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림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발달장애 화가들은 작품활동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2023 아트 캘린더'는 11월 20일(주일)에는 밀레니엄 광장에서, 이후에는 교회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2022년 12월 4일(주일)부터 11일(주일)까지 장천 갤러리에서 캘린더에 수록된 그림 13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해외 선교지 6개국에도 캘린더 보내

광림교회 사랑부는 해마다 발달장애 화가들의 작품으로 제작한 캘린더를 광림교회 해외 선교지에 보내고 있다.

지난해 몽골에 보낸 100부의 캘린더는 감리교 선교사회 15가정, 어잉게렐 교회 50가정, 어르비트 교회 35가정에 분배되었다. 캘린더에 수록된 작품과 작가들, 사랑부 이레센터, 사랑부 주관 갤러리 전시회 등을 소개받고 그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놀라워했다.

아직 몽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어르비트 교회에서 코이카(KOICA)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던, 장애인 복지개선에 관심이 있는 몇몇 청년들은 사랑부 캘린더가 몽골에서 장애인 복지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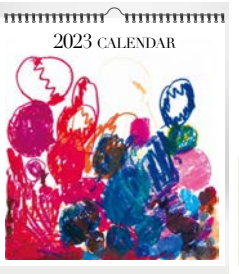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들

광림교회 사랑부 이레센터에서는 25명의 발달장애 화가들이 함께 배우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년 전 처음 시작한 학생들과 새로 합류한 학생들 25명이 현재 함께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점찍기, 선 그리기, 색감 선택도 어려워했지만, 지도교사의 헌신과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 그래도 나는 그림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빈센트 반 고흐'는 작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2년간 코로나19로 발달장애 화가들의 회화 수업 활동이 잠시 멈춰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된 수업은 작가들을 활기차고 신나게 변화시켰다. 활동시간이 끝나도 멈추지 않고 진지하게 그림에 매달리는 작가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전업 작가로서의 꿈이 실현되리라 여겨진다.

-> 3면에 계속



〈표지〉 강민애

문의
김현진 전도사
(010·6353·0684)

2 광림의 강단 내어놓음, 용서의 시작
3 광림 스토리 총력전도주일
4 하나님을 만나다 창립기념주일 택시전도데이
5 다음세대 청장년부 렛츠고페스티벌
7 믿음의 현장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내어놓음, 용서의 시작”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 8:7)

이른 아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곧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곪아있는 죄악된 모습,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간음한 여인이나, 그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이나 모두 용서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보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군중에 둘러싸여 수치심을 느끼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상태, 또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자 하는 우매한 군중과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용서받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상처 받은 영혼을 위로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상처를 내보이며 치유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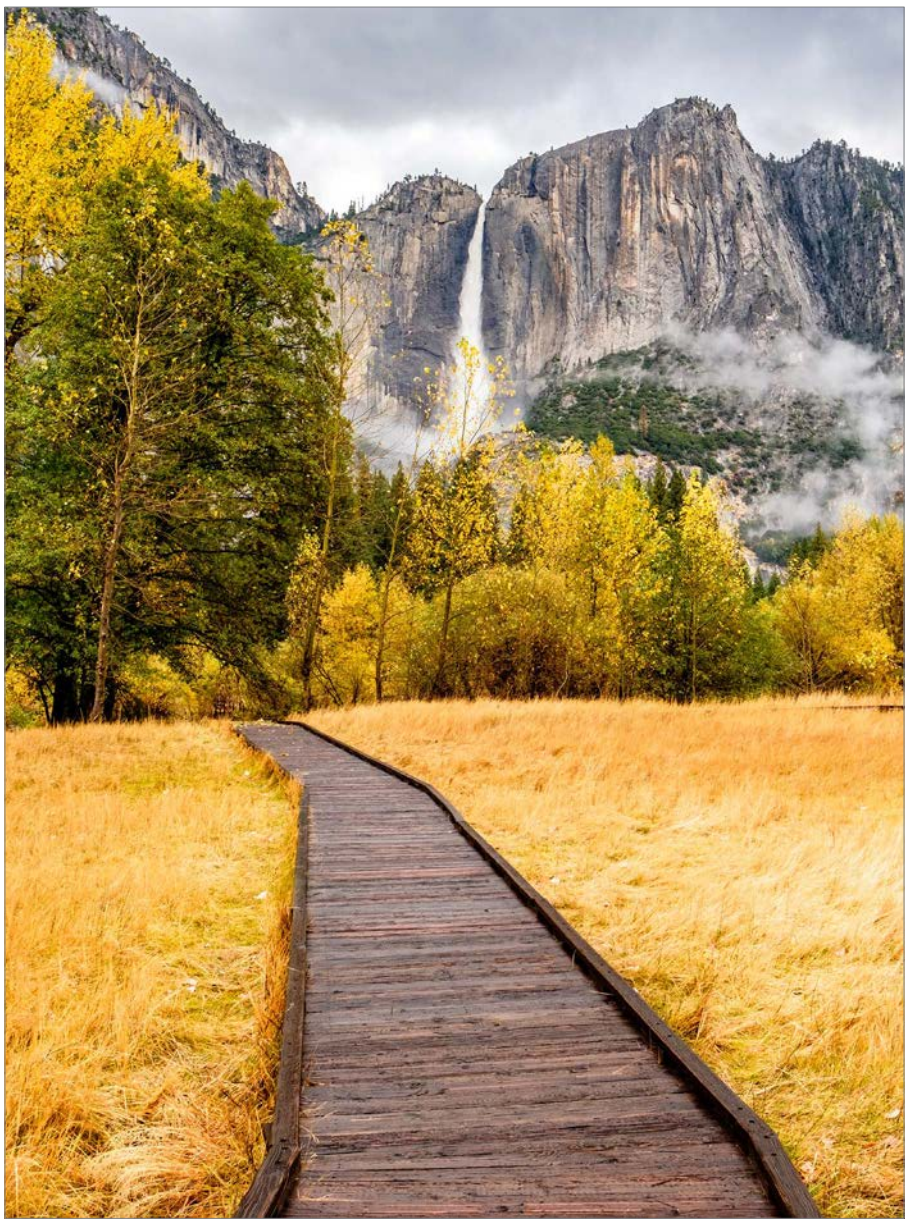
첫째,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면서도 죄에 중독이 되면 나만은 그 참혹한 심판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또는 죄인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간음한 여인은 매우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죄를 지을 때 비참한 결말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죄는 우리의 인생을 곪게 만듭니다. 설사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죄는 언제나 상처를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은밀한 죄를 즐기며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죄에 침식되어 가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1~11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둘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은밀한 죄 혹은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은밀하게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깊이 숨기고 있던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연민이나 구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성난 군중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난 군중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7절)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성난 콧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겨진 옷자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맛본 여인,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1절)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또는 그 죄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손에 돌을 쥐고 간음한 여인을 향해 죄를 묻던 군중을 생각해봅시다. 혹시 내 모습이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밀한 죄를 갖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처럼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부각시키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돌을 쥐고 간음한 여인을 둘러싸던 군중도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와 상처가 모두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나아가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상처를 숨기고 어둠으로 향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궁지에 몰렸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모든 것을 압도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군중의 함성이 너무나도 컸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죄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다 더 복된 사람이자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로 인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내어놓음에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합시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부 화가들,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

지난 8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갤러리 광명'에서 <여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 화가 9인(김기현, 김혜원, 박윤수, 박진우, 서선욱, 전지원, 정민규, 홍우선, 홍태혁)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다.

또, 9월 3일(토)부터 9월 29(목)까지 <세상을 보는 눈 : 순수>라는 제목으로 광명시 하안 도서관에서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 화가 12인(김기현, 김혜원, 박진수, 배병관, 서선욱, 이주형, 이주혜, 전지원, 정민규, 조희제, 홍우선, 홍태혁)의 전시회도 있었다. 큰 화폭에 작고 섬세한 펜만을 이용하는 작업부터, 강렬한 색채표현으로 대상의 순간을 포착하는 작업까지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들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던 모두의 마음이 치유되고, 작가들은 예술가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힐링의 전시가 되었다는 평이 있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네베라 스페이스(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에서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 화가 5인(김기현, 김혜원, 박진수, 정민규, 이주혜)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제네베라 스페이스의 쿠키 박스와 컵홀더에 작가의 작품 이미지가 인쇄되어 판매된다. 일반인들이 작가들의 작품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디자인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기업과 연계한 전업 작가로서의 취업 활동의 초석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2023년 9월에는 광림교회 70주년을 기념하여 경인미술관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대형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며, 외부에서 전시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광명시 하안 도서관 전시회




진행 중인 제네베라 스페이스 전시회



우형진 장로(사랑부 위원장)는 "사랑부 작가들의 그림을 보노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평안과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문화선교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계속 작가로서의 꿈을 펼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영혼 구원의 전교인총력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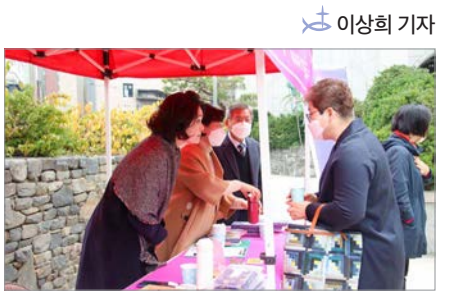
전교인총력전도의 달에 광림교회 성도들은 새신자들을 초대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각 선교구와 지교회에서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총력전도 계획과 비전을 품고 관계성 전도, 나눔 전도, 거점 전도 등을 진행했다. 매주 밀레니엄 광장에는 선교구별 부스를 마련해 초청한 새신자들을 환영했다.

성도들은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총력전도를 준비했고, 각 부서에서는 영성수련회를 열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 남선교회는 택시 전도데이 등으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여선교회는 새신자 초청 바자회로 결실을 맺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 학교는 풋살 대회를 열어 전도의 통로로 삼았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명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준행하며 신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총력전도에 많은 새신자를 전도한 최정순 권사(10교구)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전도 동역자들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나갑니다. 거두시는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은 새기쁨반(주일 10시~10시 40분)으로 4주간 신앙의 선배인 장로들로부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어지는 새생명반에서는 4주간 담당 목사로부터 하나님, 인간과 죄, 예수님, 성령님 등 기독교 교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한상국 장로는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교육에 참여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권면했다.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 이·취임식
10월 28일(금) 감독 이·취임식이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김정석 감독 이임식을 마치고
장로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했다.



여선교회 느헤미야기도회
10월 30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예배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담임목사 동정



10/30	총력전도주일
11/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11/2	수요 치유의신학
11/6	창립69주년 기념예배
11/7~10	베트남 선교전략회의 및 선교지 방문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남선교회총연합회, 택시데이 전도행사



11월 6일 창립기념주일 1~4부 예배 전·후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인 11월6일 주일 1~4부 예배 전후, 교회 정문 입구와 사회봉사관 입구 그리고 현대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데이 Taxi day> 행사를 가졌다. 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되도록 택시를 타고 오게 하면서 기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내릴 때에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날 남선교회 회원들은 교인들을 태운 택시가 들어오면 재빠르게 기사들에게 다가가 창립 기념떡, 생수, 물티슈 등의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전해 주면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등의 따뜻한 인사말을 건넸다. 또 택시를 탄 성도가 내리기 쉽게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채희갑 권사(남선교회 국내본부장)는 "이번에 7백개의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하루 전인 토요일 남선교회 임원들이 나와서 포장작업을 했다.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모두 선물을 준다. 근래 택시기사 중에는 수입이 더 좋은 배달 대행업으로 직업을 바꾼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택시가 많고, 오늘 이 행사에 동참하려 했지만 택시를 잡지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성도들도 있다"고 했다.

택시 데이는 남선교회에서 새로운 전도방법을 찾다가 2013년 부활절에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그 이후 일년에 두 차례 부활절과 교회 창립주일에 실시되고 있다.

박기연 장로는 "택시 기사들의 입을 통한 복음 전도의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10년째 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면 광림교회의 소문도 좋아지고, 택시를 탄 승객들에게 기사들이 대신 전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올해는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로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가 광림교회·현대고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하면 남선교회 회원들이 버스 기사들에게 다가가서 준비한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수고하는 회원들과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12년간 학업의 결실을 보는 수능시험은 자녀가 더 큰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첫 관문이다.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9월 수시 기도회를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오후 7시 30분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7시)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는 부목사들의 인도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기도회 시간에는 공동 기도 제목인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기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수험생 명단에 있는 22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한다.

"마음이 어지러운 가운데 기도회를 통해 위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감다원 학생)

"얼마 전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서 다시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힌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곽민상 학생)

수능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이윤숙 집사는 "아이를 위한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한 수능 기도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지팡이가 높이 들릴 때 수험생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고등부에서는 수험생을 위하여 '2022년 수험생을 위한 말씀 위로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30일>을 수험생과 부모에게 배부하였다.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험생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로써 응원하고 있다.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회>는 11월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나사렛 성전에서 열리며, 각 선교구 목사가 수험생들에게 직접 안수 기도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기도회>는 11월 17일 목요일 시험 일정에 맞추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된다.

박희윤 기자

영국감리교회 청년회장 및 선교책임자 한국 방문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국감리교회(MCB) 청년회장인 제임스 카버(James Carver)와 아시아태평양 선교담당자 쉘라 노리스(Sheila Norris)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5월 김정석 감독의 주선으로 이철 감독회장과 서울남연회 감리사들이 영국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선교전략회의를 갖은 후 후속 방문한 것으로, 양국 감리교회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목적이었다.

특별히 이들 일행은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인 광림교회 방문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로부터 배우고 싶다며 8박 9일 간의 일정을 잡았다.

가장 먼저 10월 27~28일 광림교회에서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대표에게 인사한 후 광림교회 시설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 등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일정 중에는 DMZ 방문이 있었는데 한국의 분단 현실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광림수도원에 방문하여 한국 교회의 영성과 성도들의 열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 전시된 여러 웨슬리 유물들을 보면서 영국과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웨슬리의 전통을 영국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광림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한 후에는 현재 영국교회에서는 복음적인 메시지보다는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설교하는 반면 성경과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청년과 청장년 모임 등 젊은 세대의 다양한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특히, 제임스 카버는 청년회장으로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웨슬리의 전통을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배우게 되었다며, 예배, 속회, 심방, 성경공부 등 영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광림비전랜드와 광림수도원, 광림사회봉사관 등 각종 시설을 한국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개방한 것에서는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던 웨슬리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해왔다.

특별히 쉘라 노리스는 일본에서 35년간 선교사로 있었으며, 그 동안에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했는데, 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며 영국교회도 다시 광림교회처럼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묘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으며 DMZ, 광림수도원 등의 방문은 한국과 한국의 기독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선교 중심의 광림교회 선교전략과 담임목사님의 선교 비전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의 선교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다.

제임스 카버는 자신의 일정을 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며 영국 청년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고, 영국에 돌아가 광림교회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회가 한국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부끄러움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 더욱 많은 교류를 통해 양국의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에 광림교회가 보여준 환대를 통해 큰 감동과 사랑을 느꼈다고 전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청년부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

수도권 청년들의 연합예배, 성령한국 쉐키나워십



김성혁 목사(정동제일교회 젊은이교회) 설교


쉐키나팀, 마하나임AP 찬양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 등 다음 세대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는 교회로부터 멀어진 청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도권 청년들의 연합예배, <성령한국 쉐키나워십>을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광림교회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월 1회, 정기예배로 진행됩니다.
청년들은 연합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파송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미래인 크리스천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꺼져가는 청년선교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역할 협력교회와 기관, 선교단체의 청년 담당 목회자를 성령한국 쉐키나워십의 설교자로 초청함으로써 비전을 공유하고 '청년목회자 네트워크'도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나사렛 성전에는 약 100여명의 광림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성령한국 쉐키나워십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연합예배에는 <쉐키나워십>과 <마하나임AP>가 찬양을 드렸고, 감리교 최초의 교회인 정동제일교회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혁 목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는 중보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광림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합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분량을 쌓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가나안('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은 말) 청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성령한국 쉐키나워십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 러브레터>를

광림교회 청장년부는 한지붕 두가족입니다. 청장년부라는 이름 안에 청장년 1부(35세 이상 미혼)과 청장년 2부(기혼)가 있습니다. 청장년부는 10월 30일(주일), 총력전도 주일을 맞이해 각 공동체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청장년 1부는 <러브레터(Love Letter)>라는 제목과 함께 가을 작은 음악회,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 했습니다. 청장년 1부는 지난 6월부터 기존 모임에서 분리, 미혼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감사하게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만, 아직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하나되는 공동체를 기대하며 '러브레터'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여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 연주가들이 있기에 '가을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시편 23편' 등 친숙한 음악을 첼로, 피아노, 성악으로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재원 성도의 레크리에이션, 연애와 결혼 등 인생의 결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간증으로 풀어주신 신범식, 김내리 위원장 부부의 토크 콘서트는 러브 레터의 가을빛을 더해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장년 2부


청장년 1부

청장년 2부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부부만큼 가깝고도 먼 사이는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살면서 많은 상처와 미안함,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몸 되기로 서약했던 결혼의 시작을 다시 떠올린다면 다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원들의 결혼 사진을 모아 함께 보며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전지현 자매의 연주와 공연, 결혼 10년차, 5년차, 1년차의 부부 이야기 등 다채로운 순서를 통해 결혼과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선교 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MC로 수고해주신 개그우먼 김선정의 진행으로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청아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마다 잿빛처럼 우울한 전망만 가득하기에 마음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게다가 이태원의 안타까운 사고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 가족과 함께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러브레터를 보냅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신앙 간증

나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저는 2021년 연말, 속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로 구하는 연습을 시작하니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저는 올해 1월부터 청년 4교구의 속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와 작은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장으로 섬기는 10개월간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첫째, 함께하는 동역자들, 동반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영적 도전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만 작은 결단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호렙산 기도회도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와 중보에 힘입어 첫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둘째, 저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관계성이 있던 속원들을 붙여 주셔서 서로 어리고 미성숙했던 때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서로 성장해 오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속원들을 통해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응답과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과 논리로 삶을 살아온 저를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진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직의 시기와 방향성을 놓고 저의 경험을 의지해 판단하려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먼저 기도하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때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한 발짝씩 내디딜 때, 함께하는 그 모든 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이지만 말씀, 설교, 사람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려 합니다. 작은 일에도 먼저 기도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닛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윤환 속장(청년부)

목회현장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황영재 목사 (광림북교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2020년. 한창 코로나 한복판을 지날 때에, '지선경 기도회'를 통하여 광림북교회 임원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목회적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기 때문에, 수년 내에 반드시 북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북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주일 꾸준히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상당수 정착하여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 교회학교의 부흥, 주일 저녁예배와 새벽기도회도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총력전도의 달을 보내면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300명의 예배자, 100명의 새벽기도자, 100명의 중보기도자'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300명의 예배자는 조만간 달성할 것 같으니, 꿈을 더 크게 갖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꿈이 너무 소박했나 싶어 기도 제목을 수정하여, '1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광림교회가 지난 69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광림북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그대로 전해져, 경기 북부 지역의 부흥의 중심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광림서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광림서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간 전도하기에 힘쓰며, 전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교인 성경골든벨을 비롯하여 크리스천 뮤직 콘서트, 교회학교의 가을운동회 등 전도를 위한 장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참여한 <전교인 성경골든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골든벨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참여한 성도님들 모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의 <가을운동회>는 맑은 날씨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가을운동회의 프로그램은 큰공굴리기, 색판뒤집기, 달리기, 줄다리기 등 많은 활동을 진행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여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가을운동회를 통해 전도되어 온 새로운 친구들도 활동을 통하여 보다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여한 안소연 교사는 "가을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새친구들이 잘 적응하여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10월 30일(주일) 저녁에 진행된 <크리스천 뮤직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며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헌 집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었고, 시온 성가대의 특별 출연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품 추첨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 18:13)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서교회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 지역전도와 관계전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사랑의 교제, 가을 영성수련회



광림북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목요일,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새가족을 포함한 35명의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북교회에서 아침고요수목원까지의 거리는 1시간 남짓 거리입니다. 오고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또한 서로 소개 하며, 어떻게 북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북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는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식사도 하지 못해 성도간의 교제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름도 알게 되고 서로 기도제목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임양재 권사님은 "북교회를 건축할 때만해도, 수십년 다닌 본당을 떠난 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막상 북교회 다니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준 예배당 같다" 고백하셨습니다.
작년에 등록하신 하양래 권사, 김양님 권사 부부는 "계속 기도해 주시는 하성주 엄마 아빠입니다. 대장암 4기로 벌써 항암을 22차까지 받았지만 잘 견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주시는 북교회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더욱이 이번 총력전도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라며 귀한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총력전도 거리 전도를 통해 인도되신 이조순 권사님은 '코로나 기간 CTS로 광림교회 예배를 드리며, 언제 한번 저 교회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을 만나 의정부에도 광림교회가 있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묘한 손길로 그 걸음을 북교회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교구장이신 정환명 권사님의 애찬 제공과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풍성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시 8:1)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성도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1

선한 사마리아인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2


스크랜턴이 세운 상동교회


1880년대 남대문 거리

조선에 파송된 미국인 선교사로 아펜젤러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많지만 스크랜턴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은 미감리회에서 최초로 조선 선교사로 인준받았으며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일본을 거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갑신정변으로 인해 서울에 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스크랜턴은 홀로 먼저 서울에 와서 아펜젤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주택과 기반 시설을 갖춰놓았습니다. 또한, 정동제일교회 부지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진료활동을 했습니다. 아펜젤러의 순직 이후에는 한국 선교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재 감독이었던 해리스와 선교 정책 이견으로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사임하였기에 오랫동안 감리교선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의 올곧은 성격과 '선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다른 선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끝까지 소외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약을

1885년 9월 10일, 스크랜턴은 정동에서 집 한 채를 구입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의 관심은 오로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동보다는 서대문 밖 애오개, 남대문시장의 상동, 동대문 성벽 안쪽 언덕 등, 당시로서는 서울 변두리 지역이자 빈민층이 많았던 곳에 시약소를 개설하고 장차 감리교 의료 선교 기지로 발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동 땅을 팔고 남대문으로 선교 기지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들은 안전한 '외국인 거주지'였던 정동을 포기하고 빈민 지역인 남대문으로 가려는 스크랜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랜턴은 왕궁과 외국 공사관, 양반 저택들로 둘러싸인 안전한 정동을 포기하고 1893년 봄부터 남대문 시약소 안에 있던 한옥 건물을 병원시설로 수리하고 정동에 있던 시설과 장비를 옮겨 1895년부터 상동에서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동의 '시병원'은 상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정동의 시병원 자리에는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아펜젤러는 성경책을 나눠줬고 스크랜턴은 약을 나눠줬습니다. 복음 선포와 의료선교가 함께 이뤄졌던 것입니다. 스크랜턴을 통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이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스크랜턴의 의료선교는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사랑으로 하나되는 〈스데반선교회 가족모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광림교회를 이끌어갈 2, 3, 7선교구 스데반선교회 연합모임이 10월 23일(주일) 진행되었다. 지난 7월, 1선교구를 시작으로 주일마다 10개 선교구 스데반 젊은 가정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연합해 나가기를 다짐했다.

3선교구는 사회봉사관 5층에서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 등 25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다. 입구에서부터 선배 권사들은 스데반 회원들을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회원 가족들은 서로 인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선영진 목사(3선교구)는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요일 4:16)라는 제목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가치가 있는 분이다. 문제를 만날 때에도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는 "올해는 스데반 가족들이 선교구별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뜻깊은 해였다. 교회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쓰임 받는 스데반선교회를 응원한다"고 말하며 남선교회의 사업계획과 비전을 나누었다.

이후 애찬 시간에 교구별 스데반 가족을 소개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선교구 조성길 연합회장은 "스데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광림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 스데반 조직이 연약하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면하다보니 이번 스데반 연합모임에 15가정 이상이 모였다. 앞으로도 스데반 가정의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3선교구 곽유근 연합회장은 "연합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남선교회본부임원들과 3선교구 스데반 회장단, 참석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자"고 격려했다.

7선교구 김호근 연합회장은 "선교구별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식구들도 전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광림교회를 떠받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병권 기자

〈2022년 선교구 성가제〉

12월 4일(주일)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



〈2022년 선교구 성가제〉가 12월 4일 저녁 7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한 연말을 보냈지만, 올해는 11월부터 광림교회 곳곳에서 합창소리가 울려 퍼진다. 선교구마다 함께 모여 찬양연습에 분주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친다. 2년전 선교구 개편이후로 처음 개최하는 성가제인 만큼 찬양 연습과정을 통해 선교구 성도들을 서로 알아가고 친교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번 성가제는 코로나로 인해 평시와는 다르게 진행한다. 연습날짜와 시간도 줄이고, 악보를 암보하여도, 보고하여도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당일 식사는 애찬관에서 통합으로 모이지 않고, 각 선교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본당 10개 선교구를 포함해 남교회 2개 ,서교회 1개, 북교회 1개 총 14개 팀이다. 북교회와 서교회를 제외한 모든 선교구는 100명 이상의 인원을 채워야 한다. 심사기준은 음악성 60%, 참여도 20%, 질서 20%을 배점으로 평가한다.

음악성은 화음, 정확한 가사전달, 음정, 박자 등을 심사하고, 연습 참여인원수와 당일참여인원수, 입 퇴장 질서, 회중반응, 연습후 뒷정리, 행사 당일 저녁식사 후 정리 상태 등을 평가 심사한다. 특별히 선교구별 청년, 청장년 참여도 정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상내역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격려상, 장려상, 소망상으로 시상한다.

음악위원장 장대진 장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 동안 선교구별 성가제 행사를 못하여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찬양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담임목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성가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그 기쁨을 광림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힘든 가운데에서도 찬양이 한번도 멈추지 않은 광림의 저력이 이번 성가제를 통하여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선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특별히 선교구 연합회장님과 선교구의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백명순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0



예수의 수난 예고 마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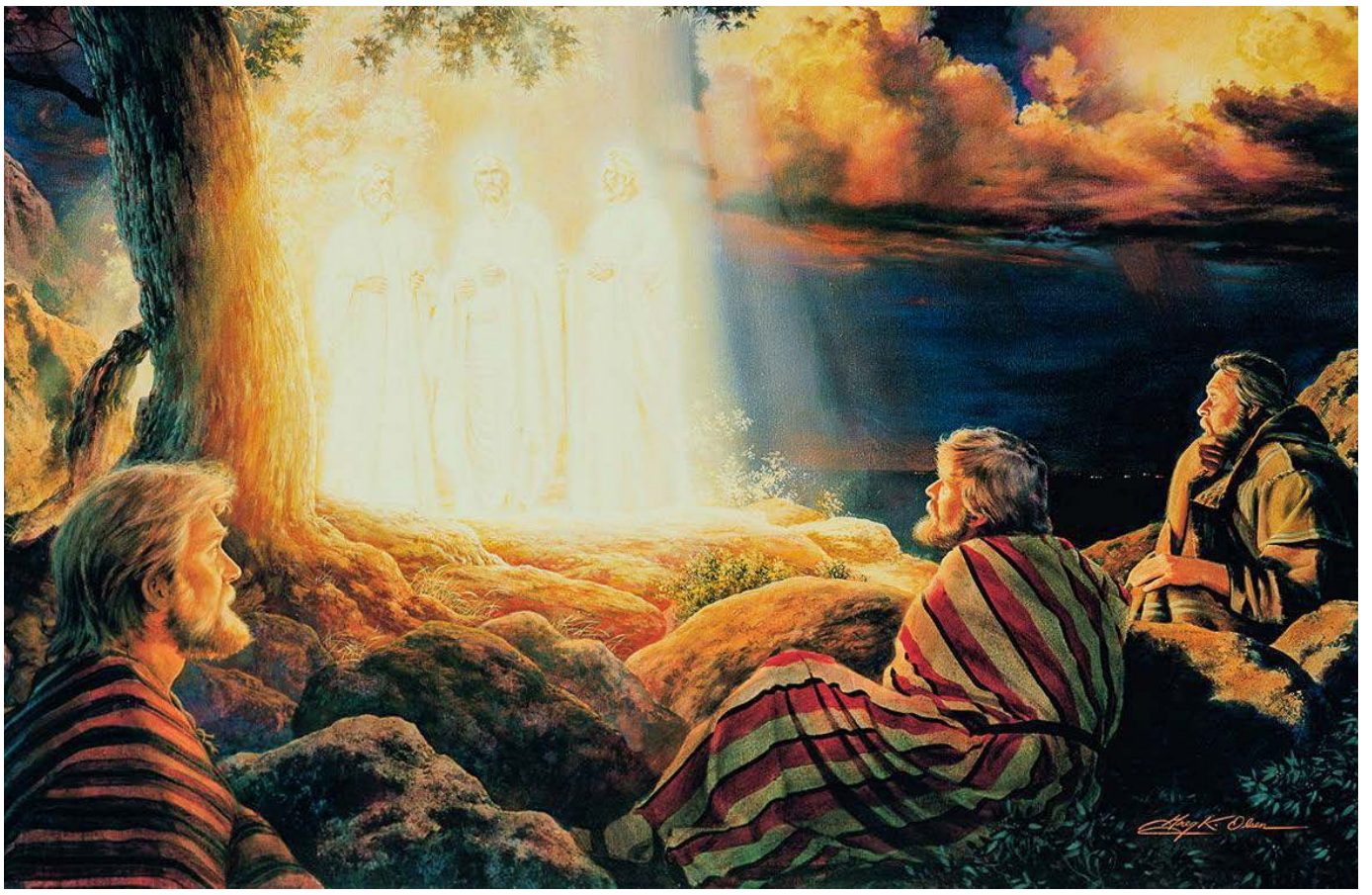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대략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대답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주님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다시 물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시몬(베드로)이 대답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의 대답을 들은 예수는 흡족하였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되도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 주신 것이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마 17:1~3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는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따로 불렀다. 예수는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으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 한 봉우리에 도착하자 예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 세 제자 역시 입을 다물고는 왜 자신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예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얼굴에서 태양의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옷은 새하얀 빛으로 충만했다. 도저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예언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제가 이곳 산 위에 초막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 **변화산 사건_**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목격하는 장면이다. **그렉 올슨 작품.**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부신 빛으로 환한 구름이 그 세 사람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의 근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잠시 후 예수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하였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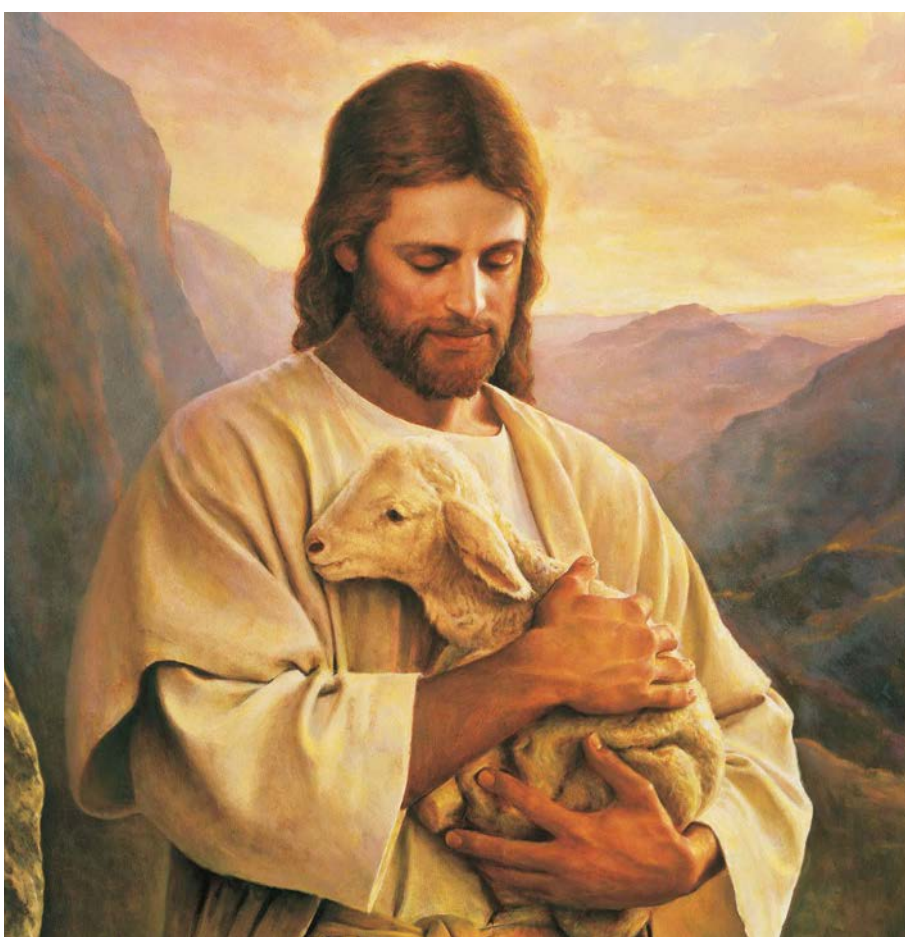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는 세 제자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였다. "너희가 본 것을 한 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세 제자는 그들의 스승 예수가 유대인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였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마 18:1~3

예수와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처럼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어 속내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 **어린 양 예수_**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렸다. **델 팔손 작품.**

예수는 마침 가까이에 있는 어린아이를 곁에 세운 후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 주면 곧 나를 반겨 맞아 준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그 한 마리를 제자리에 있던 아흔아홉 마리보다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다. 그분은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광림뉴스레터

추수감사절 추천 선물
〈명화로 보는 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